

일상에서 누리는 책 읽는 즐거움

‘진안군 전자도서관’ 총 3441종 7047권 전자 도서 보유... 올해 1000여권 확충 계획

진안군이 제공하는 전자책 서비스는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진안군 전자도서관은 모바일 기기 사용의 보편화에 따라 일상에서 누리는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21년 개관해 운영을 시작했다.

PC 또는 모바일 기기로 디지털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총 3,441종 7,047권의 전자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올 한해 분야별 베스트셀러 등 신규 전자 도서 1,000여권을 확충할 계획으로 더욱더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용 대상자는 전 진안군민은 물론 관내 소재 직장 근무자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전자도서관을 이용은 진안군청 누리집 ‘자주 찾는 서비스’ 목록에서 ‘진안군 전자도서관’을 클릭해 접속하고 회원가입을 한 뒤 안내에 따라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PC와 모바일 기기에서 전자책을 대출해서 읽을 수 있다.

전자책은 1회 5권까지, 5일간 대출하고 1회 연장으로 1일 추가로 이용이



진안군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 캡처

가능하며, 대출한 지 5일이 지난 도서는 자동 반납된다.

정상식 문화체육과장은 “군민들이 진안군 전자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상 속의 독서 접근 기회를 넓혀 책 읽는 즐거움을 확산하는 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군민들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신간 도서를 꾸준히 확보해 군민 만족도가 높은 전자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시행

장수군, 아동·청소년 성장 발달·친환경 농산물 안정적 판로 기대

학교 무상급식 사업은 학부모가 급식에 부담할 경비 전액(장수군 50%, 장수교육지원청 50%)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수군은 올해 건강한 미래세대 양성을 위해 무상급식과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등 797백만원 급식비를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28개교 2천여 명에게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예산인 725백만원 보다 10%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는 △무상급식 식품비 553백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46백만원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지원 13백만원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학교급식에 무항생제 장수산 축산물과 장수산 친환경 농산물 양파, 시금치 등 10여 개 품목과 지역산 가공품 두부, 사과즙 등 20여 개 품목을 제공해 아동·청소년 성장 발달과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농산물 공급업체와 영양(교)사, 교육청과 수시로 변동하는 농산물의 적정 가격 공급을 위해 정기적으로 학교급식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장호 농산유통과장은 “우리 미래 세대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이 2023년 1학기 장학생 선발 계획을 발표하고 대상자들에게 대한 접수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선발 대상은 초·중·고 진학 장학생, 특기장학생(초·중·고), 반디장학생(대학생)이다.

반디장학생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 미래의 역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초·중 진학 신입생에게는 10만원, 고등학교 진학 신입생에게는 20만원, 초·중·고교 재학생 가운데 예술, 체육, 기능 분야 특기 장학생에게는 초등학교생 50만 원, 중·고등학생에게

는 6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반디장학생에게는 1인당 1학기 1백만 원을 지급하면서 학업을 뒷받침한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갖춰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또는 읍·면 총무팀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초·중 진학 학생들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당초 3학년까지 지급했던 반디장학금도 4학년까지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특기장학금도 당초 전국 규모 1위 입상자 또는 입상한 팀의 팀원에서 국제대회(1~3위 입상자 또는 입상한 팀원)까지 지원, 확대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봄철 맞아 조림사업 착수

건전한 산림육성으로 농촌소득 증대 효과

무주군은 올해 봄철을 맞아 조림사업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와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21일 밝혔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 흡수원 확충과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증진을 통한 청정지역 이미지 향상을 위한 취지다. 군은 올해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

해 경제림조성 115ha, 큰나무공익조림 5ha, 산림재해방지 26ha, 탄소저감조림 10ha 등 모두 156ha의 산림에 봄철 조림사업을 실시한다.

수종별로 보면 △편백 55 ha △백합 22ha △나염송 35 ha △자작나무 10ha 등이다. 군은 올해 조림사업을 통해 경제적 생태적으로 가치있고 건전한 산림을 육성해 농·산촌 소득을 증

대시킨다는 방침이다.

조림 사업은 지속 가능한 목재 자원의 공급뿐만 아니라 산림 휴양 수요증대에 따른 치유공간을 확충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효과가 기대된다.

무주군 산림복지과 신정호 과장은 “봄철 적기 조림을 통해 묘목의 활착율을 높여 우량경제림을 양성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자원으로 만들겠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과수 화상병 예방 적기방제 당부

무주군이 과수 화상병 예방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는 과수 화상병 방제효과 향상을 위하여 사과 개화 전 1차 집중방제기간을 오는 25일까지 설정해 이 기간에 적기방제가 이뤄질 것을 각 농가에 당부했다.

군은 949농가, 749.3ha에 7천5백여만 원을 투입해 동계방제용 약제를 농가에 배부했으며, 특히 올해는 평균기온이 높아 일찍 개화될 수 있어 앞당겨

집중방제기간을 설정했다.

과수원별로 정밀하게 관찰, 사과의 잎이 완전히 피기 전에 배부된 약제로 살포해야 한다. 또한 동계화합물은 석회유황합제 등 다른 약제와 혼용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7~10일 정도 간격을 두고 방제해야 한다.

앞서 군은 과수 생육기의 화상병 발병 전 전염원 사전제거를 위한 집중방제기간중에는 병원균 잠복처 제거를 통한 병발생 억제를 위한 현장 예찰을

강화한 바 있다.

한편, 21일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임용환 농촌지원국장은 과수 화상병 집중방제기간 및 이상기상 피해 대응을 위해 1차 방제현장과 냉기류가 정체되는 하천부지 복숭아 과수원을 방문하여, 시설물 점검을 실시했다.

임 국장은 “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농가에 큰 피해를 입으며, 주변 농가에 확산될 수 있어 적기에 약제를 살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농업인들이 서리와 냉해에 안정적으로 복숭아를 재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공직자 대상 달라지는 행정기본법 특강

무주군은 21일 무주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달라지는 행정기본법 특강’을 마련하고 공무원과정에서 접하는 행정처분과 각종 소송 문제를 전달했다. 이번 법률 특강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의적이고 적극적인 특강을 통해 ‘일 잘하고 신뢰받는 일등군정’ 실현과 한 치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공직자들은 무주군민의 집 2층 대강당에서 가진 ‘공직자 법률 특강 교육’을 관심있게 청취하면서 공무원에 적용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해 총 4회에 걸친 헌법·형법·행정절차법·행정기본법 교육에 이어 이번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행정기본법에 대한 교육을 마련했다.

오는 24일부터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행정기본법상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바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재처분의 제적기간, 처분의 재심사 제도다.

무주군 기획실 박동걸 법무전문관이 강사로 나선 이날 교육은 달라지는 행정기본법의 취지 및 내용, 운영상 유의사항 및 법 기본원칙과 소송절차 등 각 제도와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고 흥미롭게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탄소중립 숲가꾸기 사업 추진

진안군은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2023년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산림자원의 선순환을 위해 추진하는 숲 가꾸기 사업은 올해 총 37억4,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0ha 규모로 추진된다.

산림자원의 선순환이란 숲을 자연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한 후 다시 심는 과정을 거쳐 숲의 생태환경을 순환시켜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산림청에서 대기 정화, 수질정화, 산림재해예방 등 산림업의 기능 향상을 위해 지정하는 경제수를 가꾸는 과정이기도 하다.

사업의 주요 추진 내용은 △조림지가꾸기 1,400ha △어려나무가꾸기 440ha △큰나무가꾸기 50ha △공익림가꾸기 80ha △산불예방숲가꾸기 50ha로 산림의 임령별, 기능별로 단계적인 숲가꾸기를 중점으로 한다.

박춘선 산림과장은 “숲의 시각적인 경관효과뿐만 아니라 숲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편안한 휴식을 느낄 수 있는 자연과 사람이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한누리전당 광장 포장공사 시행

장수군은 한누리전당을 방문하는 이용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3월 22일부터 4월 17일까지 너울관 앞 일일에서 포장공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누리전당 너울관 앞 일일은 일부 차량통행과 노후화로 인해 화강석 판석이 침하되고 깨져 수염장, 헬스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해 왔었다.

이에 군은 기존 화강석 판석 및 토사를 철거하고, 추후 침하가 되지 않도록 콘크리트를 포장해 향후에도 유지보수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현 체육융합물사업소장은 “한누리전당 너울관 앞 광장 포장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수염장, 헬스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